

설문의 답

설문 1. 누가 【래트테일】인가? (2점)

· 【감정사】

설문 2. 「무지개의 눈동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3점)

(【감정사】의 눈에 의안 대신 끼워져 있다.)

설문 3.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왜 천장에서 떨어졌는가? (1점)

(【감정사】가 보석을 감정하게 만들기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 거짓 협력을 제안하고 즉효성 수면제를 마시게 하여 얇은 스테인드글라스를 뚫고 떨어지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진상

의안을 가진 괴도 【래트테일】은 철저한 경비가 이루어지는 「무지개의 눈동자」를 훔치기 위해 대규모 계획을 세웠다.

먼저 【감정사】의 이름을 사칭해 【미술관 관장】과 「무지개의 눈동자」의 소유자인 【부호】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그 구성 성분을 분석해 레플리카를 제작했다. 이후 그 보석이 전시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전시 레이아웃을 자신에게 맡겨 달라고 제안한다.

그 뒤, 보석을 훔치게 하기 위해 거리의 불량배를 부추기고 수면제를 먹여, 전시된 보석 위로 떨어지도록 꾸몄다.

작전은 성공했고, 떨어진 불량배는 「무지개의 눈동자」의 케이스를 부수게 된다. 그 결과 【감정사】가 별실에서 감정을 진행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보석의 크기는 지름 약 2.5CM 정도의 구형 컷으로, 평소에는 희뿌연 유백색을 띠고 있다.

【감정사】는 이 보석의 형태를 이용해 감정하는 척을 하면서, 원래 의안으로 준비해 두었던 레플리카와 진짜를 바꿔치기하고, 진품을 자신의 눈에 끼워 넣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괴도 【래트테일】은 엄격한 신체 검사를 무사히 통과해, 보석을 미술관 밖으로 반출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